

전남 동부권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박병중 고흥군수

우주항공 인프라 업그레이드

박병중 고흥군수는 새해 화두(話頭)를 '뜻이 있어 마침내 이룬다'는 의미인 유지경성(有志竟成)으로 정했다.



군민 복지와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도 올해 추진할 최대 사업 중 하나다. 공동생활가정 확대 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미래산단 조성 박차

본격적인 민선 5기 출범을 맞아 그동안 역점으로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주항공과 지역인프라 구축, 관광진흥, 농수축산업과 군민복지 등 균형 전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흥군 유통주식회사 경영전문화, 고흥농수산물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 등 농수축산업의 가공, 유통 분야의 경쟁력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흥 10경 둘레길' 조성

박 군수는 "지난해 고흥읍 소도를 육성 100억원을 비롯해 지역인프라 확충과 열악한 재정을 메울 국비 확보에 상당한 결실을 맺었다"며 "이 밖에도 고흥 나들목 설치 실시시설 완료, 고흥~봉래간 국도 15호선 확포장 실시시설지구 확장, 수덕지구 우수 저류시설 추진 등 지역 SOC와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군민복지 서비스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호수 부안군수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 확정

"본격적인 새만금 시대를 맞아 부안군이 새만금의 중심축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속박시설을 유지했고, 500실 규모의 변산 청소년수련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와 연결되는 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새만금' 하면 부안이 연상되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격포항 요트시설 조성

올해 핵심시책은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확정을 부안군이 요구하는 안대로 추진하는 것과 ▲부안 제3농공단지 입지선정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 ▲격포항 요트계류장시설 조성 ▲참봉산업 집중 육성 ▲부안군 대표 축제 개발 및 개최 ▲변산 청소년수련원 건립 ▲부안을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변산반도 해상탐방로 및 변산자연휴양림 조성 등이다.

할 수 있는 대표축제 개발에 나선다. 갈수록 침체돼 가고 있는 부안을 상권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기 위해 제2농공단지의 일부 미분양 면적을 신속히 분양완료하고, 내년에는 참프레등 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공단지 미분양 완료

김 군수는 "일제강점기 양잠산업을 가능성성 오디뽕 산업으로 확대발전시켰다"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양잠산업을 2000억원 규모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획에 힘입어 부안군이 선점하고 있는 가능성 참봉산업에 대한 전국적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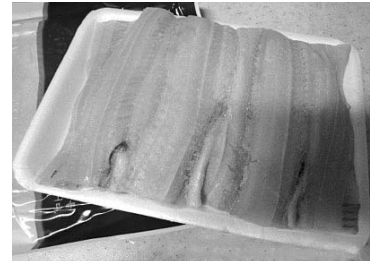
이와 함께 부안군의 역사문화와 정체성이 녹아들어 있으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특산물의 판매에 있어서 브랜드마케팅을

여수 '순살갈치' 홈쇼핑 대박

월평균 5억 매출...안강망 어선 소득도 2배 켜쥬

여수 순살갈치가 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를 잡고 있다. 11일 여수수협 등에 따르면 '여수 순살갈치'는 지난 8월부터 농수산 홈쇼핑에서 매출 5억여원의 매출을 올려 식품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로가 없어 시세가 나가지 않았던 여수갈치는 한 중매인에 의해 순살 갈치로 개발되면서 안강망 어선들의 소득도 덩달아 2배로 늘어나고 있다.



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금전수산은 현재 순살 갈치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다.

보성 녹차, 이번엔 식용유다

영농조합, 노화방지 쌀유 본격 출시

보성산 녹차를 이용한 연관제품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녹차 식용유'가 출시됐다. 보성녹차 영농조합(대표 임화춘)은 11일 새로 개발한 '보성녹차쌀유' 제품 설명회와 식품 시식회를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의 고소한 맛과 향에 녹차의 기능성분이 추가된 고급 웰빙 식용유"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 녹차 연관 제품은 현재까지 녹차라미, 차를 이용한 기능성 스낵, 페이스팩, 녹차장갑, 녹차 두부, 발효차, 녹차 볶음소금, 녹차배우스, 녹차유, 녹차 입욕제, 발효녹차 식초, 녹차 식초음료 등이 개발됐다.



새얼굴

"교통위반 등 불법·무질서 척결"

박봉기 광양경찰서장



"국민존중과 현장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경찰로 거듭나고, 인권 경찰상을 구현해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순천 출신인 박 서장은 지난 1981년 간부후보로 경찰에 투신해 전남경찰청 경무과장, 광주경찰청 경무과장, 순천서장, 광주 광산, 광주 북부, 남부서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김민욱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전북



"구제역 예방주사야 조금만 참아" 전북도내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정읍시 정읍반원들이 지난 10일 정읍시 신태인을 화호리의 한 축사에서 농가의 도움을 받아 한우에게 주사를 놓고 있다.

군산 올해 1만명 일자리 창출

시, 243억 투입...복지·산림·사회적기업 육성

군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1만명의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업 차공유도, 기술인력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4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작공 유도 ▲기업체 인력난해소를 위한 구직구인 만남의 날 추진 ▲우수 중소기업 취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맞춤형 온라인 일자리정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새만금~군산 송전선로 공사 내달 시작

한국전력이 새만금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공사를 다음달에 시작할 전망이다.

리한 한국전력은 군산시에 도시계획 실시(전력공급설비)인가를 이달중 달에 시작할 계획이다.

익산에 여성전용 콜택시

익산시는 여성은 물론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브랜드 택시 '서동콜'과 '보석콜'을 각각 500대씩 본격 운영한다.

브랜드 택시는 무선기를 이용해 배차하는 기존 콜택시와 달리 GPS로 승객과 최단거리에 있는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첨단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신속한 배차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잊혀져 가는 순창의 모습들' 郡, 10년만에 증보판 펴내



순창군이 1910~2010년대까지의 지역 생활상을 담은 '잊혀져 가는 순창의 모습들' 증보판을 10년 만에 펴냈다.

순창군은 지난 2001년 펴냈던 초판에 수록한 224매의 사진 외에 지난해 11월 군민과 향우 등을 대상으로 수집한 155매의 사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새만금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군산전력소~새만금변전소(30.3km)에 철탑 92개 등을 갖춘 송전선로를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